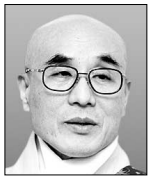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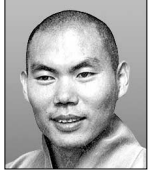
종교간 화합·평화 국제회의 참석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운산 스님은 8월 25-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종교교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한국 종교계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청소년단체활동...' 토론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8월 12-13일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월정사 주지배 평창군 죽구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8월 7일 평창 진부체육공원에서 '제1회 오대산 월정사 주지배 평창군 죽구대회'를 열었다.



'참좋은 유치원' 기공식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8월 23일 오후 1시 영남불교대학 인근 부지에서 부설 '참좋은 유치원' 기공식을 거행한다. (053) 474-8228



부산 동선회 법회 봉행 곤지암 우리들 주지 동봉 스님은 8월 10일 3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동선회 법회를 봉행했다. (031)763-4674



케어복지과 1기 졸업식 서울 수효사 주지 무구 스님은 8월 11일 경내에서 졸업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효불교사회복지대학 케어복지과 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제1회 산사체험 수련회 개최 웰스 마음의 쉼터 죽림산사 회주 리선행 법사는 8월 19-20일 경내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1회 산사체험 수련회'를 개최한다.

“발해의 위상 재확인시키는 귀한 정보”

대화령국장 화엄경권 제38 공개 조병순 관장

“중국이 고구려·발해를 자기네 변방 정권이라고 주장한다는데, 변방 정권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대장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화령국장>은 발해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주는 값진 유물입니다.”

최근 <대화령국장(大和寧藏)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38>을 입수·공개한 성암고서박물관 조병순 관장(사진은 <대화령국장>의 의의를 이와 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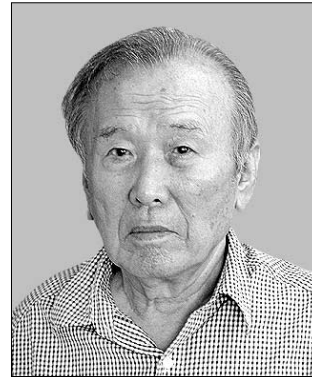
“이 불경 소장자는 ‘대화(大和)’에 주목해 일본의 대화시대에 제작된 것이라 믿고 소장해왔는데, <대화령국장>의 다른 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경도박물관은 이를 14세기 조선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고 실망해서 내게 팔아버린 것”이라고 조 관장은 입수경위를 밝혔다.

경도박물관이 <대화령국장>을 14세기 조선의 것으로 본 근거는 태조 이성계가 국호를 정할 때 ‘조선’과 더불어 ‘화령국’을 물망에 올렸다는 데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불경을 발해의 것으로 판정했지만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실치 않은 부분까지 다 밝혀 내야 한다”며 “탄소연대측정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 관장은 <대화령국장>의 ‘대화령국(大和寧國)’의 의미 규명이 시급하다고 본다. ‘화령’이 함흥 지방의 옛 명칭임은 이미 오래 전 정약용이 <아방강역고>에서 밝힌



바 있지만, 대화령국이 발해의 다른 이름인지, 발해 남경을 일컫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조 관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연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박물관장이니 무엇보다 잘 보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제1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

- 역경상... 대림 스님
문학상... 윤청광 씨
예술상... 손재현 교수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환)은 7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제 13회 행원문화상 역경분야에 대림 스님(초기불전연구원), 문학분야에 윤청광(방송작가) 씨, 예술분야에 손재현 교수(동국대 체육교육과 무용담당)를 각각 선정했다. 행원문화재단은 “대림 스님은 팔리자로 쓰인 불교의 대표적 논서 <정정도론> 전 3권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했으며 그 외 다수의 경전을 번역해 초기불전 연구와 한국불교 수행의 기초를 다진 공로가 높이 인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방송작가 윤청광 씨는 한국불교를 이끈 고승 24명의 구도행적을 집대성한 <고승열전> 24권을 완간했으며, 불교방송에서 드라마로 방송돼 불교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림 스님



윤청광 씨



손재현 교수

“손재현 교수도 ‘에밀레’ ‘승무’ ‘화관무’ ‘사천왕’ 등 전통발레에 불교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불교포교무용에 앞장선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승가원 강당에서 열린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배종신 문광부 차관 법장 스님 예방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은 8월 9일 신임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불교계와 관련된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배 차관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파라미타 전통문화재 지도자 연수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태)가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재 지도자 과정 직무연수’를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조계사 교육관에서 진행했다. 교원 30여 명이 참석한 연수는 불교 문화 교육과 문화유적지 답사 등으로 꾸며진다.

수방사, 도문 스님 초청법회



서울 수도방위사령부는 제59주년 광복절에 앞서 8월 8일 사령부내 총정사에서 내팔 대성석가사 조실 도문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2백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용성 조사님의 3·1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불회, 혜향 스님 초청법회



광주서부경찰서불교회(회장 김창배)는 8월 12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광주 불교대학장 혜향 스님(항림사 주지)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서불회는 무료법륜상담을 월 2회로 늘리고, 9월 18일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한국불서 번역해 세계에”

선집집 ‘리빙 피스’ 출판한 모리스 박사

“한국불교 문화의 참 가치가 그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8월 12일, 무안 약사사에서 열린 ‘리빙피스(LIVING PEACE) 출판기념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아이리스 출판사 대표 로즈메리 모리스 박사(48·사진)는 <리빙피스>가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 독자평가에서 최고점인 별5개를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리스 박사는 “경훈 스님의 선시는 평화가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마음과 몸으로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문화의 근원은 한국문화와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불교와 사상가들의 책을 번역해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동양가치 중심의 패러다임 주목”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대표

“물질 중심에서 정신과 물질의 조화 중심으로, 서구적 가치 중심에서 동양적 가치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기원 전 불교텔레비전 감사(사진)가 최근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지혜경영연구소(www.onwisdom.com)’를 개원하고 대표이사로 새 출발했다. 손 감사는 “지식사회가 지혜사

회로, 정보혁명이 정신혁명으로, 지식경영은 지혜경영으로 바뀌는 제4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감사는 올 9월부터 ‘지혜경영 아카데미’ ‘새출발학교’ ‘한마음명상’ 등을 통해 경영과 삶의 지혜를 나눌 계획이다. (02)766-945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곰두리네집 장애·비장애 연합캠프



의정부시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곰두리네집은 7월 28-30일 양주시 한마음수련원에서 곰두리네집 장애아동, 녹양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비장애 연합캠프를 개최했다.

인사

문화재청 과장급 승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원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연 응△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학예연구관 유마리 과장급 전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 김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장 4급상당 윤근일 △공중유물전시관장 학예연구관 김선태

Advertisement for 'Bulgwang 30 Years' book series. Text includes: '월간 불광 30년, 좋은 세상 일구는 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월간 불광, 30년, 총 발행 부수 600여 만부, 그 중 30%에 달하는 책이 군부대와 교도소, 병원 등에 보내졌습니다.', '월간 불광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발행 부수를 늘리고 전국의 군부대나 교도소와 병원에 불서보내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http://www.bulkwang.org', '구독 및 법보시 문의 420-3200'.

Advertisement for 'Buddhist Culture' magazine. Text includes: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제)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4년 7·8월호 주요 내용', '사진으로 보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특집! 한국불교학 영문서적 발간, 왜 필요한가', '미국에서 온 편지 1', '마음을 밝혀주는 세계 음악여행 불교 의식음악이란 무엇인가',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서양 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